

KWDI

해외통신

2019년 3월 1차 (2019.3.1~3.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독일 GERMANY



미투 운동이 베를린 영화제에 가져온 변화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1년 전인 2018년 2월, 베를린영화제 기간에는 ‘미투(MeToo)’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졌다. 영화 및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500명 이상의 여성으로 구성된 ‘Pro Quote Film Initiativen’ 총회를 열어, 영화 및 미디어 영역에 50% 여성 비율 달성을 목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 평등한 예산 집행’, ‘영화 및 미디어 분야 성 평등을 위한 중앙 상담 및 서비스 센터 설치’ 등을 요구해 왔다.

1년 후, 2019년 베를린영화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에 대해 독일 언론 ‘타게스 슈피겔(Tagesspiegel)’은 “결과적으로 여성 감독의 작품이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영화제 전체 프로그램 중 37%가 여성 감독 작품이었으며, 총 17편의 경쟁 부문 작품 중 7편이 여성 감독 작품이었다. 이는 지난해 18개 경쟁 부문 작품 중 네 작품만이 여성 감독 작품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한 결과다. 또한 ‘독일 영화·TV 아카데미’ 지원으로 여성 영화감독 작품을 상영하는 특별 섹션도 마련됐다. 사진작가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 바바라 롬 감독은 “경쟁부문 작품 중 여성이 카메라 촬영을 맡은 작품은 2개에 그치는 등 여전히 카메라 작업이나 프로덕션과 같은 영역의 여성 비율이 크게 낮지만, 변화가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난 10월에는 여신의 이름을 딴 ‘테미스(Themis) 상담 센터’가 문을 열었다. 17개의 영화 및 미디어 업계 조직이 힘을 모아 문을 연 센터에서는 산업 내 근무 현장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를 겪은 이들을 위해 법적·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주는 센터 요청이 있을 시 요구 사항에 따라야 하며, 정규직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에 응해야 한다. 캐스팅 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여성도 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센터의 이사회는 영화감독과 변호사 등 여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테미스 센터’ 운영은 독일 연방 문화·미디어부와 독일 공영방송사인 ARD와 ZDF에서 지원한다.

참고자료

- https://www.tagesspiegel.de/kultur/frauen-auf-dem-filmfestival-wie-hat-metoo-die-berlinale-veraendert/23970992.html?fbclid=IwAR2fMVes2EuWCd65Alq8VhS2ARqC3pvu96ALcS5nVmt4S_aT3-EWU5XvOg
- <https://www.medienboard.de/ueber-uns/>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다양한 미디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미디어보드 베를린-브란덴부르크’(Medienboard Berlin-Brandenburg)’는 미래에 더 많은 여성 제작 영화를 지원하길 바라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지원한 영화의 1/3 정도가 여성 감독 작품이었으며,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영된 18개의 ‘미디어보드’ 지원 영화 중 대다수가 여성 감독 작품이었다. ‘미디어보드’ 측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여성이 기획하고 제작한 영화는 더 많은 영화 관련 상을 받고 있으며 축제에도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독일 필름 아카데미 대표인 배우 이리스 베르벤은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각 세대가 평등한 권리와 힘을 얻기 위해 새롭게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카메라 뒤에서 일하는 제작 영역의 여성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디에이고 주립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할리우드 제작 영역의 여성 비율은 1998년 17%에서 2018년 20%로 증가했다. 10년간 3% 증가에 그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나 세르너 스웨덴 영화 협회 회장은 “카메라 뒤인 제작 영역에서 더 많은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카메라 앞에서의 다양성도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여러 여성 감독을 비롯한 산업 종사자들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평등’과 ‘다양성’ 주제가 전년도보다 강하게 표현되었으며, 미투 논의에 대한 성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긍정적인 변화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영화 산업 내 여성 비율을 50%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0년 50/50’현장이 현실로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스웨덴 SWEDEN



안전한 스포츠를 위한 스웨덴의 노력

홍희정 울산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지난 2011년 스웨덴의 유명 스포츠계 인사인 파트릭 웨베리(Patrik Sjöberg)가 자서전인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Det du inte såg)’을 펴내면서 스포츠계에서 암암리에 일어났던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파트릭 웨베리는 자서전에서 스웨덴 스포츠계에서 인정받는 코치이자 자신의 양부였던 빌리오 노우시아이넨(Viljo Nousiainen)의 성적 괴롭힘에 대해 폭로했다. 파트릭 웨베리는 고교 엘리트 스포츠 선수로써 노우시아이넨의 지도를 받으면서 올림픽에서 세 개의 메달을 따는 등 우수한 성적을 냈었기에 대중들의 충격은 매우 컸다.

참고자료

- <https://www.expressen.se/sport/olsson-viljo-blir-lite-av-ett-monster/>
최종검색일: 2019.02.15.
- <https://www.rf.se/globalassets/riksidrottsforbundet/dokument/dokumentbank/policies/policy-och-handlingsplan-mot-sexuella-trakasserier.pdf?w=900&h=900>

파트릭 웨베리에 따르면 지도를 받던 11세부터 14세까지 성적 괴롭힘을 당했으며, 성장한 이후에서야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의 자서전이 발간된 이후 노우시아이넨에게 지도를 받았던 또 다른 유명 육상선수 야닉 트레가로(Yannick Tregaro) 역시 동일한 진술을 했다. 그는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에는 그것이 성희롱과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그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수치심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당시 파트릭 웨베리와 야닉 트레가로와 함께 훈련을 했던 크리스티안 올손(Christian Olsson)도 이들의 진술에 힘을 실는 주장을 했다. 당시 본인은 노우시아이넨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 했다.

이러한 증언을 통해 당시 스포츠 연맹은 노우시아이넨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어 대중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당시 스포츠 연맹(Riksidrottsförbundet) 의장이었던 카린 맛손 위베르(Karin Mattsson-Weijben)는 기자회견을 통해 스포츠 연맹은 아동 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 및 스포츠 클럽에서 학대 및 성적 괴롭힘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스포츠 연맹은 학대 및 성적 괴롭힘과 관련하여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그리고 스포츠 지도자들의 배경조사를 통해 학대나 성적 괴롭힘의 과거가 있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는 모든 스포츠 클럽 회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도자, 운동치료사(의사 및 간호사 포함), 상담사, 선수들의 경우 성 범죄 및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지도자를 제외한 2명 이상의 선수가 있을 때 훈련을 해야 한다' 등이 있다. 이러한 규칙과 함께 스포츠클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향후 관련 범죄를 일으킬 경우 처벌은 물론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성희롱 및 성폭력 정책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성범죄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성희롱과 성폭력에 해당하는 언어, 동작, 행위, 상황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루밍 성폭력, 권력형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유형을 인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 예시 등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이 장기화되거나 은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다양한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스웨덴 미투 운동 이후 스포츠 연맹은 스포츠 성폭력 관련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으며, 2018년 11월 15일 스포츠 옴부즈맨을 신설하고, 내부 고발자 서비스를 도입했다.

- <https://www.rf.se/Tryggidrott/>
최종검색일: 2019.02.20.
- <https://www.svd.se/viljo-nousiainen—den-geniforklarade-tranaren>
최종검색일: 2019.02.15.
- <https://www.thelocal.se/20110428/33450>
최종검색일: 2019.02.14.
- <https://www.thelocal.se/20110613/34318>
최종검색일: 2019.02.14.
- Riksidrottsförbundet (2014), Riksidrottsförbundets policy – mot sexuella övergrepp inom idrotten –med vägledning,
- Riksidrottsförbundet (2017), RF:s Stadgar - I lydelse efter RF-stämman 2017.
<https://www.rf.se/globalassets/riksidrottsforbundet/dokument/dokumentbank/stadgar-och-regelverk/rfs-stadgar-2017.pdf>

스포츠 옴부즈맨의 역할은 사례 접수 및 상담, 스포츠 연맹의 법령(제14장)에 따라 의심 되는 범죄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변호사 또는 아동 및 청소년 스포츠 전문가와 같은 내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내부 고발자 서비스는 피해 사례를 목격했거나, 직접 피해를 당했을 경우, 두려움으로 사건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된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든 메시지는 기밀로 처리되고, 제보자는 익명처리되며, 제보 사실은 스포츠 연맹 임원 및 관련 외부 감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내부고발 사례가 접수되면 회의를 통해 추가 조치를 결정하는데, 범죄로 추정될 경우 경찰에 혐의 사실을 신고하고 사회복지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트릭 웨베리의 폭로로 시작된 스포츠 성폭력의 문제는 스웨덴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스포츠 성폭력에 침묵하고 있었던 관계자들의 각성을 끌어내고, 대중의 관심을 통해 스포츠계의 새로운 성폭력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1999년 사망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한 노우시아이넨에게도 불명예를 안김으로써 사회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다. 스웨덴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시는 노우시아이넨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도로명에 붙였다. 하지만 예테보리 문화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 파트릭 웨베리와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前)축구 감독 베리 밴넬, 유소년 축구 선수 상습 성폭행, 30년형 선고받아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최근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축구 강국인 영국에서 과거 유명 축구 감독이 상습적으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2016년 이 사건이 처음 폭로되자, 만 16세가 되면 상호 동의 하에 합법적인 성관계가 인정되는 영국에서 체육 감독이 만 16세 이하 선수들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영국 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지난 2016년 11월, 영국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데이비드 화이트가 유년 시절 축구 감독인 베리 밴넬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화이트는 영국 프로 축구 구단인 맨체스터 시티에서 활약했던 인물로 1998년 은퇴했다.

그는 2016년 영국 언론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1970년 후반, 1980년 초반 무렵 내가 유소년 팀에 있었을 때 밴넬에게 오랫동안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밴넬의 범죄 사실을 고발했다. 화이트뿐 아니라 앤디 우드워드, 스티브 워터스 등 영국 프로 구단에서 활약했던 유명 전직 축구 선수들도 "유소년 선수 시절 밴넬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을 쏟아냈다.

참고자료

- The Guardian (2016)
"Former England footballer David White was sexually abused by Barry Bennell",
2016년 11월 23일자
(접속일자 2019년 2월 27일)
<https://www.theguardian.com/football/2016/nov/23/david-white>
- BBC (2018)
"Football sex abuse: Who is Barry Bennell?",
2018년 2월 15일자
(접속일자 2019년 2월 27일)
<https://www.bbc.com/news/uk-38104681>

전직 축구 선수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밴넬은 '축구 신인'을 발탁하는 영국 프로 구단의 유소년 축구팀 감독이자 스카우터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와 크루 알렉산드라 FC 소속 감독이었으며 "내 손을 거쳐야 프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랑했을 정도로 축구계에서 힘이 막강했고,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꿈을 이뤄줄 것"이라며 자신을 신격화했다. 하지만 밴넬은 권력을 이용해 축구 경력을 쌓기 원하는 어린 남자아이들만 노리는 소아성애자였다.

하지만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폭로가 이어지면서 수십 년간 숨겨져 있었던 밴넬의 끔찍한 학대가 2016년에서야 세상에 드러났다. 영국 법원은 2018년 2월,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밴넬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밴넬에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축구 선수는 총 86명에 달했다.

밴넬의 피해자 중 성적 학대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살한 인물도 있었다. 맨체스터 시티 소속으로 전도유망한 유소년 축구 선수였던 마크 헤이즐딘은 1982년 밴넬과 단둘이 스페인 여행을 떠난 적 있으며, 법원은 헤이즐딘이 2006년 자살한 이유가 밴넬의 성폭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봤다.

밴넬에게 30년 형을 선고한 클라먼트 골드스톤 판사는 판결문에서 "밴넬은 축구가 인생 전부인 소년들의 상황을 악용해 갑질을 일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는 "밴넬은 소년들이 인생 전부를 바쳐 축구 경력을 쌓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축구 선수들에게 밴넬은 그들의 꿈을 이뤄주는 신처럼 보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에서 밴넬은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였고,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순수한 소년들의 유년 시절을 짓밟았다"고 말했다.

2016년 '밴넬 사건'이 축구 강국인 영국 사회를 뒤흔들자 2017년 영국 정부는 체육 감독들이 자신이 지도하는 만 16세 이하 선수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안을 내놨다. 영국 법에 따르면 만 16세부터 상호 동의하에 합법적인 성관계가 성립되지만, 교사, 상담사들이 만 16세 이하인 학생 또는 상담 대상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다. 체육계는 이 같은 규정에서 빠져 있었다.

하지만 2017년 정부 안은 지금도 계류 중이다. 영국 사법부가 "아직도 법을 추가 검토 중"이라며 법 시행을 미루자 시민단체들은 "체육 감독도 자신이 관리하는 만 18세 이하 체육 선수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 The Guardian (2018)
"Barry Bennell branded 'sheer evil' as he is sentenced to 30 years",
2018년 2월 19일자
(접속일자 2019년 2월 27일)
<https://www.theguardian.com/football/2018/feb/19/barry-bennell-branded-sheer-evil-as-he-is-sentenced-to-31-years>
- Safeline (2019)
"Sexual Abuse in sport: The untold story of society's latest taboo"
(접속일자 2019년 2월 27일)
<https://www.safeline.org.uk/sexual-abuse-in-sport-the-untold-story-of-societys-latest-taboo/>
- The Guardian (2017)
"Law to change to make sex between coaches and 16- and 17-year-olds illegal",
2017년 11월 16일자
(접속일자 2019년 2월 27일)
<https://www.theguardian.com/sport/2017/nov/16/law-change-coaches-relationships-16-17-year-olds-illegal>
- BBC (2019)
"Sexual relations between coaches and under-18s 'should be illegal'",
2019년 1월 4일자
(접속일자 2019년 2월 27일)
<https://www.bbc.com/news/uk-wales-46741161>



영국 정부, 경제적 통제도 가정 폭력으로 간주하는 ‘가정 폭력법’ 초안 마련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 영국 정부가 가정 폭력의 법적 정의를 제시하고, 가정 폭력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가정 폭력법 초안(Draft Domestic Abuse Bill)을 만들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영국에서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을 경제적으로 통제(Economic Control)하는 행동도 가정 폭력으로 분류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 영국 내무성과 법무부는 1월 22일 이 법안을 발표하며 “획기적인 가정 폭력법 초안(The Landmark Draft Domestic Abuse Bill)”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현재 영국에서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와 의회는 2013년 내무성이 16세를 가정 폭력 피해자로 포함하고, 강압적 통제(Coercive or Controlling Behaviour)까지 가정 폭력으로 분류하는 ‘확대된 정의’를 통상적으로 사용해왔다¹⁾.
- ▶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정 폭력의 법적 정의(Statutory Government Definition)를 만들었다. 이번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외에도 경제적 폭력(Economic Abuse)과 통제(Controlling), 교묘한 비신체적 폭력(Manipulative Non-Physical Abuse) 등도 가정 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 정부 초안에 따르면 “경제적 폭력에는 금전적 폭력(Financial Abuse) 외에도 상대가 경제적 자원을 유지하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통제하는 행동도 모두 포함되며, 돈, 음식, 교통 수단, 주거 환경을 통제하는 행위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소비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등급을 낮추는 행위도 가정 폭력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초안에는 가정법원 재판 과정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로 들어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 ▶ 영국 정부가 가정 폭력법 발의에 힘쓰는 이유는 영국 내 가정 폭력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내무성이 올해 1월 발간한 ‘가정 폭력의 사회경제적 비용’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Domestic Abuse)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7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가정 폭력으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660억 파운드(우리 돈 약 98조 2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폭력의 신체적, 감정적 피해 때문에 가장 큰 사회경제적 비용 (470억 파운드)이 발생했고, 피해자 의료 서비스 지원(23억 파운드)과 경찰력 지원(13억 파운드) 등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
- ▶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가정 폭력법 초안과 더 광범위한 정책은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GOV.UK (2019)
“Government publishes landmark domestic abuse bill”,
2019년 1월 21일,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publishes-landmark-domestic-abuse-bill>
(접속일자 2019년 3월 13일)
- GOV.UK (2019)
“Transforming the Response to Domestic Abuse Consultation Response and Draft Bill”,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72202/CCS1218158068-Web_Accessible.pdf
(접속일자 2019년 3월 13일)
- CNN (2019)
“Economic control recognized as domestic abuse in new UK draft law; offenders may face lie-detector tests”,
2019년 1월 21일자
<https://edition.cnn.com/2019/01/21/health/uk-domestic-abuse-bill-gbr-scli-intl/index.html>
(접속일자 2019년 3월 13일)
- House of Commons Library (2018)
“Domestic Violence in England and Wales”,
<http://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SN06337/SN06337.pdf>
(접속일자 2019년 3월 13일)

1) 2013년 내무성이 내린 가정 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정 폭력이란 성별 또는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16세 이상인 연인이나 가족 구성원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거나 위협하는 행동 또는 폭력을 뜻한다.’



캐나다 여성들, 제 3회 여성의 행진(Women's March) 통해 여성 권익 향상 강조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2019년 1월 19일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위니펙 등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세 번째 여성의 행진(Women's March)이 열렸다. 여성의 행진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 여성의 권익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토로하며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집회를 벌인 것을 기점으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다. 캐나다 여성의 행진은 캐나다 여성의 권익을 향상한다는 미션 하에 2018년에는 캐나다 각지에서 1,198개의 행사가 주최되었고 1,043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바 있다.

여성의 행진측은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헬스케어, 경제적 안정, 대표성, 안전(H.E.R.S. : Healthcare, Economic security, Representation, Safety)을 내세우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웰빙과 경제적 안정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국적, 나이, 인종과 문화권, 종교, 성적 지향이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을 포괄하는 접근성 있는 헬스케어를 주장한다. 둘째, 여성의 경제적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가 G20국가 중 여성의 자영업이 가장 활발한 것에 주목하면서 자체적으로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을 홍보하고 멘토십을 장려하고 있다. 셋째, 트뤼도 수상 내각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캐나다 정치에서 여전히 과소대표 있어 여성의 행진 측은 시, 주, 국제적 각 수준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 중 여성의 낙태권에 찬성하는 페미니스트 (Pro-choice feminists)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캠페인 스쿨 (Women's campaign School)을 캐나다 전역에 운영, 여성 정치인 육성하고 있다. 끝으로 '여성은 육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으며, 안전은 건전한 법적 절차 실행을 통해 보장 되어야만 하고, 특히 여성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예컨대 성폭력과 같은 상황, 은 여성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원칙 내세우고 있다.

2019년 여성의 행진에서는 구체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피켓들도 많이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성교육 재편 계획에 대해 항의했으며, 2018년 9월 온타리오 주정부가 온타리오 산파 전문대(Ontario College of Midwives)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 시위도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또한 다문화 사회인 캐나다에서 여성운동이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지지부진한 성과와 최근의 미투 운동 등이 개별의 운동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에 대항해야 하여 모든 여성이 연합하여 행동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번 여성의 행진에는 여성단체들은 물론 일반 개인 시민들, 각종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The National Union of Public and General Employees : NUPGE) 등 노동조합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모든 종류의 젠더 불평등에 반대,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되기를 거부하는 개인들(Non-Binary Individuals) 모두에게 공정한 일터가 되기 위해 싸울 것임을 밝혔다.

참고자료

- Women's March Canada, <https://www.womensmarchcanada.com>
- Global News, Support your sisters': Protest signs from Women's Marches across Canada, <https://globalnews.ca/news/4867031/womens-march-posters-canada-2019/>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Canada Report on Women's Entrepreneurship. <https://www.folio.ca/canadians-are-most-active-women-entrepreneurs-in-the-world/>